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76호
2023.10.12.(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 【EU】 EU, 탄소세 첫 단계로 배출량 보고 의무화...세계 최초
- 【EU】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자동차(BEV) 보조금 조사 공식 개시 발표
- 【미국·EU】 미국에 이어 EU도 對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검토

주요 산업별 이슈

- 【반도체】 美, 삼성·SK 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무기한 허용
-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토요타와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 【반도체】 네덜란드 ASML, 日 홋카이도에 기술 거점...반도체 협력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 경제】 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섰다운 전망

원자재 뉴스 PLUS

- 【10.1주 원자재 동향】 ‘납품대금 연동제’ 10.4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한국무역협회, 영국의 핵심광물 전략 (주한영국대사관 담당자 인터뷰)

III. 공급망 소식통

- 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 발간
-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EU

EU, 탄소세 첫 단계로 배출량 보고 의무화...세계 최초

- 📍 유럽연합(EU)은 '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가 가동됨에 따라, 10.1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시행
 - ▶▶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약 14,000원~약 7만 원)의 벌금 등 벌칙 부과 예정
 - ▶▶ '23.10~12월까지의 첫 보고 시한은 '24.1.31일까지이며, 외국 수출기업은 마감 시한 전에 EU가 정한 형식에 맞춰 신고자인 EU 역내 수입업자에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
- * EU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3국 수출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역내 수입업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전환기(~'25.12월)까지는 별도 탄소세 부과 없이 배출량만을 보고하나, '26.1.1일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효되면서 탄소세 부담이 본격화될 전망
 - ▶▶ 전환기 개시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기 초반인 '24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함

출처: 연합뉴스('23.10.01), 뉴시스('23.10.0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U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자동차(BEV) 보조금 조사 공식 개시 발표

- 📍 10.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등 역내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식 착수
 - ▶▶ 금번 조사는 역내 제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집행위 직권조사**로 진행되며, 집행위는 中 제조사들이 자국에서 여러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발표
- 📍 금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CN코드: 87038010)**로 중국·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
 - ▶▶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음
- * 집행위는 '22.10.1~'23.9.30 기간의 보조금 및 산업 피해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며, 피해 관련 동향 조사는 '20년부터의 추이를 고려할 계획
- ▶▶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하는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출처: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23.10.4), KBAEurope('23.10.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EU

미국에 이어 EU도 對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검토

- 📌 10.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
 - » EU 집행위는 '23년 연말까지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24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
 - *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란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 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
 - » 이어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비슷하다"고 분석
 - *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함
- 📌 또한,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美 정부가 이르면 10월 초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 반도체에 대한 對中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보도**
 - » 美 상무부가 '22.10.7일 자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 및 AI 반도체의 對中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으로 향후 발표될 최종 규정에는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일부 하점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

출처: 로이터통신('23.10.02), 조선일보('23.10.0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반도체

美, 삼성·SK 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무기한 허용

- 📌 10.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美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전함
 - » 美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힘
 - *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美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됨을 의미
 - » 앞서 美 정부는 '22.10월 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1년간 유예한 바 있음
- 📌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함

출처: 연합뉴스('23.10.09), TV조선('23.10.0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토요타와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 10.5일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미 미시간주 공장에 약 30억 달러(약 4,500억 엔)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25년 가동 예정으로 연간 생산량은 20GWh이며, 이는 토요타 EV 'bZ4X' 모델 약 28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

» 본 계약은 합작공장(JV)을 제외한 LG에너지솔루션의 단일 수주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25년까지 미국 미시간 공장에 총 4조 원을 투자하여 토요타 전용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

» 하이니켈 NCMA* 기반 파우치셀이 탑재된 모듈이 공급될 예정이며, 생산된 배터리 모듈은 토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되어 토요타 신형 전기차 모델에 주로 탑재될 예정

* 하이니켈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사용한 5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로, 니켈 비율을 90% 가량 높이고 코발트 비율을 10% 이하로 줄였으며 알루미늄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

- LG에너지솔루션의 셀 및 모듈 기술력, 토요타의 팩 기술력을 결합하여 안정성 및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한층 강화된 배터리를 생산하고, 안심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LG에너지솔루션 보도자료('23.10.0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반도체

네덜란드 ASML, 日 홋카이도에 기술 거점...반도체 협력

- 9.26일(현지시간)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은 홋카이도 지토세시 인근에 '24년까지 기술 지원 거점 신설 예정

» '23년 하반기에 개설될 예정인 ASML 홋카이도 기술 지원 거점에는 직원 약 50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일본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공장 내 EUV 노광장비 설치, 공장 설립 및 보수·점검 작업 등에 협력할 예정

» 일본 정부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2nm(나노미터·10억분의 1m)공정 반도체를 '25년에 시험 생산한 후 '27년부터 양산할 계획

- 닛케이신문은 미·중 대립으로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해외 반도체 대기업이 일본에 잇따라 거점을 열고 있다고 분석

» ASML은 규슈 구마모토현* 내 기술 지원 거점 또한 확장할 예정이며 현재 약 400명인 일본 전체 인력을 '28년 560명 정도로 늘릴 방침

* 규슈 구마모토현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

출처: 닛케이신문('23.09.26), 연합뉴스('23.09.2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경제

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섰다운 전망

9.30일 (현지시간) 美 의회는 임시 세출 결의(일명 '스탑갭') 통과로 연방정부 섰다운 모면(~11.17일)

- »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美 하원의장 해임에 따른 연방정부 섰다운 가능성 고조
- » 강경 보수파 의장 선출 시, 美 의회 정치 실종에 따른 경제 악영향 불가피

임시 세출 결의 통과 개요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세출 권한 종료 시한(9.30일 자정) 직전 의회 스탑갭 법안 가결에 따라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연장 » 연방정부 찬반 표결 하원(335-91), 상원(88-9)로 통과
결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0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승인 제외한 민주당 요구안 대부분 수용 ② 11.17일까지 '23년도 회계연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집행 권한 승인 ③ 재난기금, 연방 침수 보험, 연방항공청 등 프로그램 연장 ④ 공화당 강경파 요구안인 예산 30% 삭감, 국경보안 강화 등은 미처리

연방정부 섰다운 시 경제 파급효과

금융시장 영향 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이후 모든 섰다운 상황서 S&P지수는 평균 3.2% 상승세, 정부 디폴트 사태 동반하지 않아 對금융시장 영향 미소 전망 » 美 최근 경제 상황(고유가, 자동차 파업 등)이 섰다운과 맞물려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존재
정부 지출 지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의회예산처, '18~'19년 최장기 35일 섰다운으로 인한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지연 발생 보고 » '19년 1분기 美 실질 GDP의 약 2%에 달하는 80억 달러 규모 손실 발생, 30억 달러는 영구 회복 불가 손실로 평가
美 GDP 성장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드만삭스, 연방정부 전면 섰다운 시 美 GDP 성장률 매주 0.2% 감소 전망 » GDP,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정부 주요 경제지표 집계 차질에 따른 연준 통화 정책 결정에 어려움 예측
美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美 국가 신용등급 하락 경고 »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의 美 신용등급 하향(AA+) 이후, 추가 신용등급 하락은 美 국채 발행 안정성 훼손 우려 심화

향후 섰다운 전망

최종 세출법 통과까지 의회 교착 상태 지속에 따른 섰다운 위기 상존

- » 10.2일 기준 12개 세출법안 중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상·하원 견해차로 인해 양원 법안 중재에도 상당 기간 소요 예상

내년 선거 앞둔 시점, 與野 모두 섰다운 상황은 회피할 것으로 예상

- » 내년 초까지 여러 번 스탑갭 처리에 따른 임시 예산 연장 반복을 통해 상·하원 절충안으로 세출법 통과 가능성 큼

맥카시 美 하원의장 해임에 따른 섰다운 발발 가능성 고조

- » 하원의장 교체 과정에서 與野 간 세출법 협상 지연 불가피, 차기 하원의장의 정치적 성향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지대 전망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경제통상 리포트('23.10.04)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10.4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이 10.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납품대금 연동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을 작성하게 하는 제도로, 수탁·위탁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손실이 공급망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

- '23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함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1주)

◆ [비철금속] 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거래소의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하방압력 발생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9월	전년비(%)	9.4주	10.1주	전주비(%)
동	8,797	8,588	△2.4%	8,107	7,934	△2.1%
니켈	25,605	22,938	△10.4%	18,697	18,400	△1.6%
아연	3,478	2,699	△22.4%	2,535	2,509	△1.0%

* 자료원: LME

(동) 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달러가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위험자산 기피심리 확산,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확대에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하방 리스크 심화 가능성 제기

(니켈) 美 달러화 강세 및 거래소 재고량 증가에 따른 니켈 수급긴장 완화로 하방압력이 발생했으나, 中 전기차 시장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확대 전망으로 상회 하방압력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 [철강] 中 연휴 종료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가격 변동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9월	전년비(%)	9.4주	10.1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86.32	△46.6%	163.59	145.98	△10.8%
원료탄	364.99	282.53	△22.6%	329.80	349.55	6.0%
철광석	120.26	115.90	△3.6%	117.91	119.54	0.8%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량)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부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中 국경절 연휴 종료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로 철광석 가격 보합세

(유연탄) 10.1주차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82.79달러로 전주대비 8.8% 하락하여 에너지원 가격 하락 주도

☞ 다만,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으로 향후 가격 하방압력 상쇄 가능성 제기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1주)

◆ [희소금속] 中 국경절 연휴로 인해 일부 광종 가격 미고시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9월	전년비(%)	9.4주	10.1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300	△16.2	1,175	-	-
탄산리튬	72,290	41,479	△42.6	23,078	-	-
수산화리튬	67,180	42,343	△37.0	20,339	-	-
코발트	31.20	17.95	△42.5	16.80	17.09	1.7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17,720	△16.5	366,750	-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1,279	△39.2	73,300	-	-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코발트) 유럽시장 코발트 금속 현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 ▶ 향후 단기적 시장가격 방향성에 대해서는 항공 분야의 확고한 수요와 높은 생산 원가로 상방을 전망하는 의견과 수산화코발트 원료의 과잉 공급에 따른 하방을 예상하는 의견이 분분함

※ 10.1주는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해 기타 광종 가격 고시 없음

◆ [에너지] 전주대비 국제유가 하락, 이-팔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방 압력 모니터링 필요

〈국제 유가 동향〉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9월	전월비 등락폭	9.4주	10.1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93.25	6.79	94.85	89.20	-5.65
브렌트유	99.04	92.59	7.48	94.90	87.22	-7.68
WTI	94.33	89.43	8.10	91.25	85.47	-5.7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美 국채수익률 및 달러화 강세, ▲美 휘발유 수요 감소,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금지 완화, ▲이라크 북부 석유 수출 재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주대비 국제유가 가격 하락

- ▶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향후 분쟁이 확산될 경우, 국제 유가 상방 압력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 유가 동향 모니터링 필요

* 10.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전장보다 3.59달러(4.34%) 오른 배럴당 \$86.38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10.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2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4% 이상 올라 배럴당 \$88.15에 장을 마감한 바 있음



공급망 더 알아보기

영국의 핵심광물 전략_주한영국대사관 담당자 인터뷰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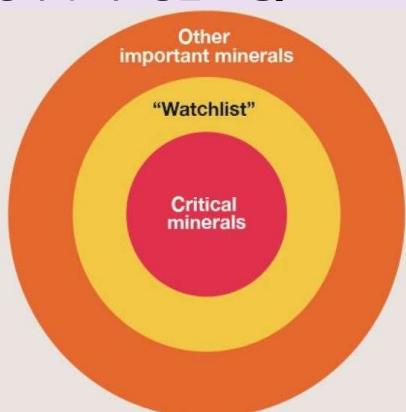
[참고] Resilience for the Future: The United Kingdom's Critical Minerals Strategy(2022.7)
Critical Minerals Refresh: Delivering Resilience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2023.3)

탄소중립 이행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인해 각국의 광물 수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각국 산업발전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지난 22년 7월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3년 3월 핵심광물 회복탄력성 강화방안 등을 발표하며 광물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의 경영환경&에너지정책팀장 로렌하트(Lauren Hart)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핵심광물 관련, 영국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 영국은 넷제로 달성, 주요 제조분야 육성, 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지질조사국(British Geological Survey) 산하에 설립된 핵심광물 인텔리전스센터(Critical Minerals Intelligence Centre)에서는 글로벌 공급위험의 정도와 수급불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18개의 주요 광물을 선정했습니다.
- ▶ 또한 22년 7월 '핵심광물 전략'을 통해 영국정부의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23년 3월 <Critical Minerals Refresh>를 발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영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핵심광물 현황]



1. **핵심광물(18종)** : 경제적 취약성 및 공급위험이 있는 광물
 » 안티모니, 비스무트, 코발트, 갈륨, 흑연, 인듐, 리튬, 마그네슘, 니오븀, 팔라듐, 백금, 희토류, 실리콘, 탄탈럼, 텔루륨, 주석, 텅스텐, 바나듐
2. **관심목록(5종)** : 급격한 수요 증가로 잠재적 공급위험이 있거나 글로벌 수급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광물
 » 이리듐, 망간, 니켈, 인산염, 루테튬

* 자료 : Resilience for the Future: The United Kingdom's Critical Minerals Strategy

📌 영국의 주요 광물확보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영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자국 생산역량 확대 ◆자원보유국과의 교류 강화 ◆우방국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① **(자국 생산역량 확대)** 영국 내 생산 확대는 금융 지원 확대와 탐사/채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광업 및 광물 분야의 기술 복원, 광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R&D 수행, 영국의 핵심광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회수·재사용·재활용 확대와 자원 효율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내 생산역량 확대 노력 사례]

- ▶ 2023년 8월,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은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의 자국 내 공급을 위해 코니시 리튬 (Cornish Lithium)에 약 2,400만 파운드 상당의 투자 (총 5,400만 파운드 투자의 일부)를 발표
- ▶ 2023년 6월, 이머리스(Imerys) 와 브리티시 리튬(British Lithium)은 영국 최초의 배터리 등급 탄산 리튬 생산업체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를 발표
- ▶ 영국의 희토류 공급망 탄력성 강화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UK Research and Innovation의 CLIMATES(Circular Critical Materials Supply Chains)펀드가 1,500만 파운드로 출범했으며, 2023년 첫번째 자금 지원 대상으로 Driving the Electric Revolution에 8천만 파운드를 지원

②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광물은 부존의 편중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영국은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G7,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다자간 협력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협력 강화 노력]

- ▶ 22년 11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해 책임감 있는 광물 탐사, 생산, 가공 촉진과 관련한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
- ▶ 영국과 캐나다는 23년 3월, 스마트폰, 태양광패널, 전기차 등의 핵심기술 강화 및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광물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
- ▶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영국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광물 관련 패널 행사를 최초 개최
- ▶ COP27에서 영국 총리는 개발도상국의 핵심광물 관련 기술혁신 지원 및 케냐/이집트에 대한 청정 에너지 투자가 포함된 6천 5백만 파운드 규모의 기후지원 패키지를 발표

📌 핵심광물 분야에서 영국의 강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 ▶ 영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지질학적 잠재력과 미드스트림 역량 외에도, ESG 스탠다드 강화를 위한 리더십과 함께 채굴, R&D 그리고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핵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국제개발 및 외교 전반에 걸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광업(채굴), 금속 거래 및 금융 관련 세계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 ▶ 또한 영국의 엑시터 대학교(University of Exeter)의 캄본광업학교(Camborne School of Mines)는 1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적 수준의 지구과학 및 광업학 학제간 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광업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영국의 핵심광물인텔리전스센터(CMIC)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지질조사국(BGS)은 금속 및 광물에 대한 정책결정, 규제, 책임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는 광물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영국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서 ESG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광업 투자자 커뮤니티와 표준 정립 기관들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투명성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던 금융특구 ‘시티 오브 런던 (City of London)’ 은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와 주요 광업 금융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는 금속 거래의 세계적 중심지입니다.
- ▶ 이 외에도 영국은 광물의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유망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인 Johnson Matthey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금족 금속 (PGMs) 2차 재활용 업체입니다. 또한 영국은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Faraday Institution과 버밍엄 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가 개발한 배터리 리튬회수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재활용에 힘쓰고 있는데, 대표적 기업으로는 버밍엄 대학교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된 Hypromag이 있습니다. Hypromag는 고유의 수소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고 재활용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일반 제품에서 분리하여 희토류 자원을 순환시킵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 ▶ 영국과 한국은 모두 핵심광물의 주요 소비국이며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국 모두가 핵심광물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광물안보협의체(MSP), G20 등 다자간 협력체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광업 기술과 우수한 기업, 선도적인 R&D 등을 기반으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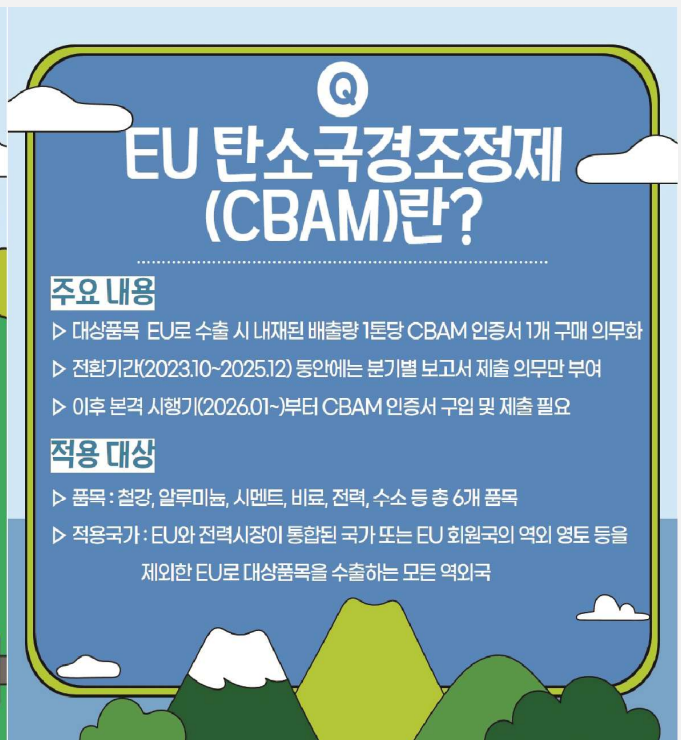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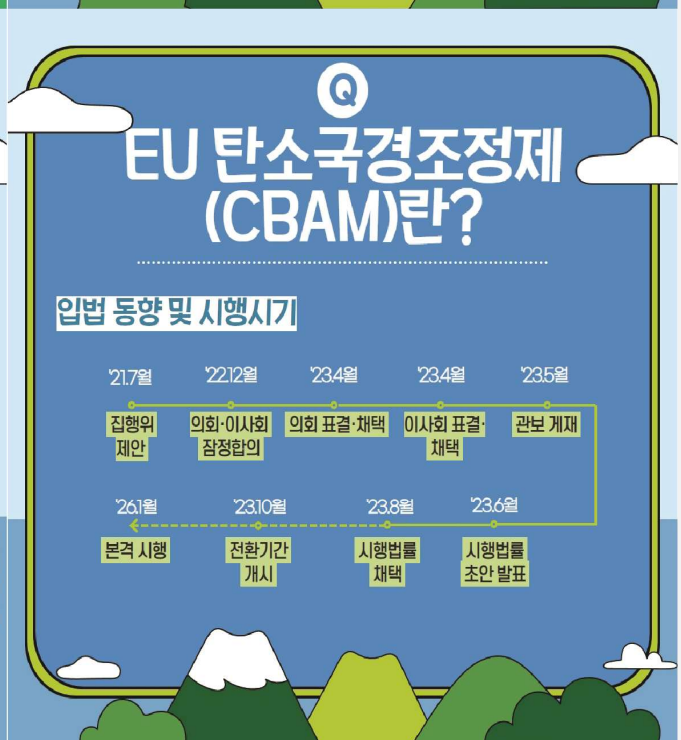


공급망 소식통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 발간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KOTRA 브뤼셀무역관, 통상협력팀



EU CBAM Q&A 북 발간

본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 중심으로 답변 제공하는

Q&A 북을 발간 했습니다

내용

Part 1. EU 탄소국경조정제 (CBAM) 규정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CBAM 개요 - 적용대상 - 우리기업 체크 포인트
	2. CBAM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전환기간 동안 기업들 대응방안 - CBAM 신고절차 - 운영 형태 및 제재조치 - 향후 일정
Part 2. 알기 쉬운 CBAM QnA	1. CBAM 전환기간 보고서 작성	- CBAM 보고서 내용 - 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 제품 탄소배출량 계산법 - K-ETS vs EU 요구방식 차이
	2. CBAM 본격시행	- 검증보고서 내용 및 발급절차 - CBAM 인증 구매량 및 가격 - 탄소가격 할인 위한 서류 - 무역방지 조항 이해사항
	3. 향후 일정 및 전망	- EU 집행위 시행방법 및 이행 법률 제정 계획 - CBAM 품목 확대 여부

EU CBAM 대응 핫라인 운영
(TUV SUD X 브뤼셀 무역관)Q&A 북을 봐도,
유튜브 영상을 봐도 모르는 점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우리가 누구... KOTRA...♡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브뤼셀 무역관에 문의)을 개설하여

기업들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 준비 완료!



EU 탄소국경조정제 Q&A 북 발간

다운로드 받을 곳

dream.kotra.or.kr 에서 PDF 버전 다운로드 가능



핸드북



보고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간편하게 QR 코드를 이용해
접속해보세요!수출 바우처 서비스
(TUV SUD KOREA 탄소 검증)

신청 방법

- 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 가능

수출 바우처
비로가기 >> 검색창에
"CBAM" 검색 >> CBAM(탄소국경
조정제도) 검증 서비스 >> TUV SUD KOREA
서비스 이용하기

단,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바우처 시업에 선정된 기업 한정!

TUV SUD KOREA의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검증 서비스 이용 비로가기

EU CBAM 대응 안내 유튜브 영상

보다 더 쉽게

EU 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구요?

▶ 'CBAM..? 전환기간? 본기간? ...CBAM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Youtube 바로가기

youtube, kotra, or, kr/globalkotra 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가능!

브뤼셀 무역관 x 통상협력팀

감사합니다!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해외 진출 시 국가별·품목별로 요구되는 해외인증의 종류와 획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출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요

- » 일자 : '23.10.23(월) ~ 10.25(수)
- » 장소 :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5대 분야 해외인증제도 설명 + 1:1 상담
 - ▷ IT·전기전자, 의료기기, 식품·화장품, 기계·로봇, 생활용품·기업경영 등
 - 인증별 제도 설명 후 질의 및 상담부스 운영
- » 주최 : 무역협회,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 » 신청방법 : 각 인증 분야별 (오전/오후) 50명 선착순
- ※ 기업당 2명까지 참석 가능, 상담은 사전 신청 필수
- » 신청기한 : ~'23.10.18(수)

세부 프로그램

날짜	내용	
10.23 (월)	(오전) IT·전기전자 분야	(오후) 기계·로봇 분야
10.24 (화)	(오전) 식품·화장품 분야	(오후) 의료기기 분야
10.25 (수)	(오전) 생활용품·기업경영 분야	

※ 일자별 세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참고

세미나 및 상담회 문의

- » 관련 문의 : 해외인증지원단 정병노 위원 (☎ 02-6240-4777(4622))

글로벌 경제지표 (23.10.10.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9말	10/5	10/6	10/10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349.30	1,350.50	1,349.90	1,349.50	△0.03%	6.72%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347.30	1,348.60	1,348.30	1,347.70	△0.04%	6.51%
₩/CNY	186.51	181.44	184.64	185.05	185.01	185.09	0.04%	2.01%
₩/¥100	1,032.48	945.56	904.78	908.02	906.46	906.98	0.06%	△4.08%
Y/US\$	115.14	133.73	149.13	148.73	148.92	148.79	△0.09%	11.26%
US\$/EUR	1.1318	1.0617	1.0563	1.0514	1.0534	1.0557	0.22%	△0.57%
CNY/US\$	6.3681	6.9630	7.3028	7.3010	7.3010	7.2921	△0.12%	4.73%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2.2 (₩/¥100) 943.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0.9(전일)	'23.10.10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7.05	88.49	1.4 1.7%	16.7 23.2%	9.7 12.3%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16.35	114.05	△2.3 △2.0%	34.6 43.5%	△3.3 △2.8%
비철 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015.50	7,907.50	△108.0 △1.3%	907.5 13.0%	△479.5 △5.7%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93.00	2,199.00	6.0 0.3%	119.0 5.7%	△161.5 △6.8%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8,610.00	18,260.00	△350.0 △1.9%	△840.0 △4.4%	△12165.0 △40.0%

반도체

	'21	'22	'23.7월	'23.8월	'23.9월	10/5	10/6	10/9	10월(~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3.99 29.9%	3.07 △23.0%	1.49 △52.1%	1.46 △47.2%	1.48 △41.3%	1.51 △37.7%	1.52 △37.0%	1.52 △36.8%	1.51 △37.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55 14.7%	7.25 10.7%	6.31 △7.7%	6.32 △3.8%	6.32 △3.8%	6.39 △2.9%	6.40 △2.7%	6.40 △2.7%	6.38 △2.9%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9.8	9.15	9.22	9.29	전주비(9.22)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99.25	948.68	911.71	886.85	△2.7%	△19.9%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9.29	10.2	10.3	10.4	10.5	전일비(10.4)	'22년말비
BDI	2217	1515	1701	1737	1780	1778	1827	2.8%	20.6%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